《기러기사냥》 ····· (4)
음산한 가을밤 ····· (4)
잠들지 않는 승냥이들 ····· (23)
하늘에 닿은 원성 ····· (37)

노루골샘터 ····· (58)
짓밟힌 인생들 ····· (58)
근오의 피값이다 ····· (74)
죄와 악몽 ····· (95)

인생의 막바지 ····· (112)
《더가니골》 ····· (112)
산바우 ····· (125)
칼을 받아라 ····· (140)

끊어진 쇠사슬 ····· (158)
분기점 ····· (158)
불길 ····· (175)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 (192)